

베르디 오페라 명작, '조선의 옷' 입고 곡성군민 찾는다

‘조선에서 온 리골레토’ 선배
내달 12일 곡성레저문화센터
조선 정서·풍광으로 재탄생
판소리 창법·서양 성악 조화
곡성군민 1000원 관람 가능
“낯설었던 오페라, 쉽게 감상”

‘조선의 옷’을 입은 베르디 오페라가 곡성군민을 위한 천원의 감동 무대로 찾아온다.

20일 곡성군과 공연예술기획사 ㈜오뮤는 ‘조선에서 온 리골레토’를 다음달 12일 오후 5시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오페라 거장 베르디의 명작 ‘리골레토’를 조선 말기의 풍광과 정서를 담아 우리말 오페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작품으로, 고전 오페라를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내 주목받고 있다.

오페라 원작 ‘리골레토’는 이탈리아 궁정을 무대로 펼쳐지는 권력과 음모, 부성애의 비극을 다룬다. 곡성에서 만날 이번 작품은 이를 조선 말기로 무대를 옮겼다.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탐관오리의 횡포와 인간사의 비극을 재구성했으며 조선시대 관복, 화려한 한복을 입은 등장인물들과 전통 무대미술이 어우러져 시각적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대사과 아리아는 우리말로 진행되며, 전통 판소리 창법과 서양 성악이 어우러진 음악적 구성으로 오페라 입문자도 쉽게 몰입할 수 있다. 공연 음악은 전통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며 깊은 울림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가장 독창적인 장치는 극의 흐름을 이끌고 해설하는 박수무당 캐릭터다.

박수무당 역할 겸 해설자로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극대전’ 대통령상 수상자인 명창 서의철이 무대에 올라 극의 흐름을 안내한다. 이같은 구성은 익숙지 않은 오페라 형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



다음달 12일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선보이는 ‘조선에서 온 리골레토’ 공연 모습. (주)오뮤 제공

시에, 극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관객들이 전통 판소리 창법과 서양 오페라의 만남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홍아람 예술감독을 필두로 조은비 연출, 백우주 지휘, 김해경 음악감독, 김연화 무용감독 등이 참여했으며, ‘꼭두’ 역의 권용만, ‘분이’ 역의 김효주, ‘변사도’ 역의 이상문 등 다채로운 출연진이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은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고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곡성군민은 90% 할인된 1000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타지역 관객에게도 7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진행되고 공연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세계 명작을 우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돼 뜻 깊다. 이번 무대가 주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안겨줄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곡성에서 피어나는 ‘조선 오페라’의 울림이 한국형 공연예술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 기획총괄을 맡은 홍아람 (주)오뮤 대표는 “서양 오페라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분들도, ‘조선에서 온 리골레토’를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이입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역사와 정서, 익숙한 우리말로 전개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오페라’가 무엇인지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전남도립도서관, 문학 상주작가와 글쓰기

27일, 윤소희 작가 참여
초보자 토요일 특강 등 다채

전남도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설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27일부터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주작가가 도서관과 협업체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집필 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다. 전남도립도서관은 2017년부터 본 사업에 연속 선정돼 지역 내 문학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동화 작가 윤소희 씨가 상주작가로 참여한다. 윤 작가는 MBC 창작동화대상으로 등단했으며, 역사동화 ‘붉은

보자기’와 ‘동백꽃, 울다’ 등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27일 개강하는 첫 프로그램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낭독과 필사’는 위로와 지혜의 문장을 함께 읽고 쓰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과정이다.

29일부터는 자신의 경험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책을 기획하고 출간까지 준비하는 ‘나만의 책, 어떻게 시작할까’ 과정도 운영된다.

모든 과정은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문집 발간과 전시회도 예정돼 있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jeonnam.go.kr>) 또는 전화(061-288-52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동환 기자**

“근심 없는 하루의 미학”... 강소이 작가 20번째 개인전

무우 연작 등 ‘One Fine Day’
22~28일 동구 이화갤러리

흙과 불, 그리고 이야기로 삶의 곁을 벗어난 강소이 작가의 20번째 개인전 ‘One Fine Day’(어느 멋진 날)가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이화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무우’를 중심으로 삶의 평온함과 행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작가에게 무우는 ‘없을 무(無), 근심 우(憂)’. 즉 근심이 없는 상태를 상징한다. 강 작가는 “내가 생각한 행복은 평안함이고, 평안함은 곧 근심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 부모의 품 안에서 느꼈던 평안함과 부모가 된 이후 자식이 자신의 품 안에 있을 때 느꼈던 안도감을 작품에 담아냈다.

무우 연작의 두 번째 이야기가 담긴 이번 전시는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하루가 오히려 가장 멋진 날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투영한다. 작품 속 무우는 삶의 작은 순간들, 평범함 속의 행복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그 어떤 극적인 사건보다도 마음



강소이 작 ‘무우’. 이화갤러리 제공

의 평온을 주는 일상의 가치에 대해 작가는 담담한 시선으로 질문을 던진다.

강 작가는 그간 조소와 도예, 회화를 넘나드는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전주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수학한 그는 흙에 대한 애정으로 조형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1999년 첫 개인전(1999, 전주 우진문화공간)을 시작으로 전국의 다양한 공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아트페어 등에 참여해 왔다. **박찬 기자**

윤상원 열사의 삶과 5·18 민주화 정신 음악으로 되새기다

‘5·18 기념음악회’ 개최
27일 전남대 민주마루서
합창단원 100여명 참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삶과 정신을 음악으로 조명하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된다.

20일 윤상원기념사업회는 ‘5·18 기념음악회’를 오는 27일 오후 7시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5·18 기념음악회’는 지난 2022년부터 개최되며 광주의 민주항쟁 역사를 합창으로 되새기고 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창작판소리 ‘5월 광주 윤상원’ 중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를 시작으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A장조, K.488 2악장(아다지오)’, ‘오월의 노래’, ‘우리가



어느 별에서’, 포레의 ‘레퀴엠 Op.48’ 등이 연주된다. 공연의 마지막은 관객 전원이 함께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장식한다.

이번 무대는 박인욱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교수가 지휘를 맡고, 소리꾼 임진택, 교수 이윤선, 가수 윤선에, 바리

톤 공병우, 소프라노 나혜성, 피아니스트 문현욱이 함께한다. 더불어 총 100여명의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와 솔림 합창단원이 참여해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병문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를 세운 역사적 사건이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5·18 정신이 세대를 넘어 기억되고 계승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회째를 맞은 ‘5·18 기념음악회’는 (사)윤상원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사)카메라타전남, (주)에나 기획, 광주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음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상원기념사업회-윤상원기념관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티켓 문의는 윤상원기념관 교육홍보팀(062-951-2577)에 하면 된다.

박찬 기자

저항시인 죽형 조태일을 기리다... 제7회 조태일문학상 공모

내달 30일까지 접수·상금 2000만원
최근 2년 이내 발간한 시집 대상

한국시단의 대표적인 민족·민중시인으로 꼽히는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기리는 제7회 조태일문학상 공모가 시작됐다.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와 곡성군이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작가회의, 창비, 문학들이 후원하는 ‘제7회 조태일문학상’ 접수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2년 이내(2023년 6월 1일 이후)에 발간한 시집을 시인 본인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추천위원의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상금은 2000

만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9월 곡성 조태일문학기념관에서 열리는 조태일 시인 26주기 문학 축전에서 진행된다. 수상 시인은 시 전문지인 ‘시인’에 수상 작품과 작품론, 수상자 대담 등을 게재하며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접수는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7 빛고을아트스페이스 4층 광주전남작가회의 내 제7회 조태일문학상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공모 요강은 곡성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이메일(guktopoet@naver.com)로 하면 된다.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는 지난 2019년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온 조태일을 조명하고, 뛰어난 시적 성과를 보여준 시인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태일문학상을 제정했다.

첫 수상자로 ‘당신은 북천에서 온 사람’의 이대홍 시인, 제2회 ‘붉은빛이 여전합니까’의 손택수 시인, 제3회 ‘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의 박남준 시인, 제4회 ‘꿈꾸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의 송경동 시인, 제5회 ‘독각’의 고재중 시인, ‘두루미의 잠’의 최두석 시인 공동수상, 제6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니’ 박석준 시인 등이 수상했다. **박찬 기자**